

## 제 4 회 어린이 우유장학금 글짓기공모 당선 작품소개

이글은 당협회가 '88년도 우유 공동홍보의 일환으로 제 4회 전국어린이 우유장학금 글짓기 작품을 공모한 결과 총 응모자 5,759편의 작품이 접수되어 새싹회 아동문화가 윤석중씨를 통해 엄격한 심사결과 최우수상 1편, 우수작 2편,佳作 5편, 입선작 10편, 장려상 30편 등 총 48편이 당선되어 이번호에 최우수작 및 우수작 2편을 게재하였으며 잔여佳作 및 입선작, 장려상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본지에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註)



최우수상



## 우리집은 우유가족

안동국민학교  
3~5 박윤경

“땡땡!”  
이건 엄마의 초인종 소리입니다.  
방에서 숙제를 하다 말고 일터에서 돌아오신 엄마를 마중하러 우리 3 남매는 후닥닥 신발도 제대

로 신지 않고 대문가로 달려 나갔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들. 날 보러 나온 게 아니고 우유 먹으러 나왔지.”

그러시면서 엄마는 비닐 가방 속에서 5 개의 우

유통을 꺼내시면서 우리들에게 차례 차례 1개씩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유가 2개가 남는데 1개는 아빠 거고 나머지 1개는 엄마 몫이지만 엄마는 잡수시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엄마는 그 우유를 냉장고에 넣어 두었다가 막내 동생 준이가 잠잘 무렵 꼭 품에 안아서 먹이는 걸 자주 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어머니께 떡볶이를 사 달라고 조르다가 혼이 난 적이 있었는데 그 후부터 어머니는 매일 회사에서 퇴근하고 오실 때마다 우유를 사 오셨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길가에서 불량 식품을 사 먹을 때, 나도 그것이 먹고 싶은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량 식품을 사 먹고 우리반 친구가 식중독에 걸려 죽도록 혼이 나고, 또 선생님이 불량 식품의 해독에 대해서 상세히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후부터는 그런 것이 보기도 싫었습니다.

대신 우리 어린이들이 튼튼하게 자라는데 필요한 식품이 어떤 것들이 있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유는 우리들이 자라는데 꼭 필요한 음식이라고 몇 번이나 강조하시면서 선진국의 어린이들보다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의 키가 작고 체중이 나가지 않는 것은, 그 어린이들보다 우유를 많이 먹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엄마는 매일 그렇게 우유를 가져 오시면서 우리에게 먹이는구나.’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엄마의 사랑이 정말 깊다는 걸 느꼈습니다.

마지막 1개의 우유마저도 우리에게 주시는 엄마!

나는 준이가 어려서 지금은 모르지만, 크면 년 밤마다 엄마 몫을 먹고 자란 거라고 말해 줄 것입니다.

우리 아빠는 또 이상한 습관이 있어요. 저녁에 들어오시면 밥을 잡수실 때, 보리차나 냉수는 드시지 않고, 우유를 밥 잡수실 때마다 조금씩 드시는 거예요.

내가 이상해서 여쭙어 보았더니,

“아빠는 위장이 나쁘거든. 그런데 우유는 음식을 소화시켜 주는 걸 도와 주고, 위를 보호해 준단다.”

그래서, 우유는 아빠의 반찬이기도 합니다.

나는 새삼스레 우유란 정말 좋은 식품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우유가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가져 오시는 5개의 우유, 그 속에는 엄마의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 가족 만세! 우유 가족 만세!

우수상

## 고마운 우유

전남·영암 용당 국민학교

6~1 전 현 정

“콩새야, 안녕?”

빨간색 책가방을 등에 업은 채 교문을 들어서면 언제 내 모습을 보았는지 낯익은 친구들이 우르르

몰려와 콩새라고 놀리는 바람에 고개를 꼭 숙이고 말았다.

그럴 때마다 나는 알미운 친구들의 놀림이 듣기

싫어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 막았지만 그것도 잠시 뿐이었다. 나는 정말 키가 크고 싶었다.

그래서 항상 뒷자리에 앉은 키 큰 친구들에게 부러운 눈길을 보내곤 하였다. 친구들은 나의 고민을 들으면서 멸치를 먹어야 키가 크다고 권하는 바람에 두 달 동안 도시락 반찬으로 멸치를 가지고 다녔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또 미션이가 콩나물을 먹으면 키가 거짓말 처럼 커진다고 해서 목포에 가시는 어머니에게 콩나물을 사 오시도록 졸라대곤 하였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다른 친구들은 쑥쑥 키가 자라는데 나 혼자만 키가 크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어 내 머릿속에는 ‘콩새’라는 별명이 떠오르는 걸 숨길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집에서 대 보는 어린이 신문 한 통통이에 내 호기심을 끝마친 기사가 나 있었다. 우유를 먹는 학생이 우유를 먹지 않는 학생보다 키가 빨리, 크다는 기사였다.

“정말 그럴까?”

몇 번인가 해 온 것처럼 이번에도 거짓말이면 어찌나? 하는 불안한 마음이 내 가슴 속에 남아 있었으나 또다시 속은 썸치고 믿어 보기로 마음 먹었다. 멸치와 콩나물을 먹으면서 벽에 그리다 만 것을 색연필을 찾아 지금의 내 키를 표시했다.

한달 전과 달라지지 않은 작은 키였다.

하루, 이틀, 사흘…….

처음에 우유를 마시려니 목구멍으로 다시 넘어 올 것 같이 가슴이 울렁거렸으나 자꾸 마시니까 조금도 이상하지 않았다.

나는 일주일에 한번씩 키를 재어 보았다. 육십

같아서는 옥수수 튀기는 기계처럼 순식간에 키가 커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었으나 빨간 줄은 조금씩 조금씩 천장을 보며 올라가는 것이었다. 그때마다 내 가슴은 두근거렸다.

조금씩 내 키가 커가는 것이 신기해서 키를 재는 일요일 아침이 기다려 졌다. 작년 이맘 때만 해도 나를 콩새라 짓궂게 놀려대던 친구들이 나를 부러워하기 시작했다.

“현정아! 너는 뭘 먹고 그렇게 커졌니?”

친구들이 물어 볼때마다

“응 이것이 모두 우유 덕분이야.”

하면서 씩웃 웃어 준다.

이제 국민학교의 최고 학년이 된 지금 내 별명은 콩새가 아니라 ‘우유대장’이다. 작년만 같아어도 다른 친구들보다 키가 조금 적다는 한 가지 이유로 앞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지금은 뒤쪽에 앉은 수영이가

“현정아, 너 때문에 칠판에 쓰인 글씨가 안보여.”

하며 울쌍을 짓기 때문에 중간쯤에 앉는다. 오늘도 두 병의 우유를 마셨다. 나는 어른이 되더라도 우유를 계속 마시고 싶다. 또 ‘비실이’란 별명을 가진 미라에게 우유의 좋은 점을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 해 주었지만 앞으로도 나처럼 키가 작고 몸이 허약해 외톨이가 되는 친구들에게도 우유 대장이 되는 방법을 알려 주어야겠다.

오늘날 나는 우유아 떨어질 수 없는 단짝 친구가 되고 말았는데, 책상 앞에 앉아 벽에 그려진 빨간 색 줄을 볼때마다 키 작은 나에게 용기와 희망을 키워 준 우유가 살아 있는 슈퍼맨 같은 생각이 든다.

우유상

## 우리집은 우유가족

대구·대명국민학교

5~2 이 동 경

지난해 가을의 일이었읍니다.

“동정아, 오늘은 학교 갔다 오면, 동생 숙제 줘

봐 주고, 할아버지 말씀 잘 듣고 있거라.”

“어머니는 어디 가시는데요?”

“할머니께서 요즈음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시서, 오늘 여러가지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가기로 했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구나.”

할머니께서 편찮으시다는 말씀에 걱정이 되기는 했지만, 올해 일흔 셋이라는 연세를 믿지 않을 만큼 늘 건강하셨기 때문에 큰 병은 없으리라 생각하면서 학교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공부를 마치고 집에 와서 동생하고 숙제를 다 해놓고 아무리 기다려도 병원에 가신 할머니와 어머니는 오시지 않았읍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신 것은 아닐까요? 저녁때가 다 되었는데도 오시지 않으니 걱정이 됩니까.”

“이제 곧 오겠지. 종합병원에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차례를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걸린단다.” 하고 말씀하셨지만, 할아버지께서도 무척 초조해 하시는 눈빛이었읍니다.

잠시 후

“딩동 덩동.”

하는 벨 소리에 뛰어나가 보니, 할머니와 어머니께서 돌아오셨읍니다.

“할머니, 병원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동경이가 걱정을 많이 했구나? 여러가지 검사를 했는데, 다른 이상은 없고, 위산 과다 현상이고, 나이가 많아서 위 기능이 약해진 것 뿐이란다.” 하시며 할머니는 병에 든 하이얀 물약과 알약을 보여 주셨읍니다.

“이 약만 잡수시면 할머니는 다 낫는 거지요?”

“그래 그래. 자식도 걱정은…….”

할머니는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병원에 가 보기를 잘했지. 나는 혼자서 위암이 아닌가? 하고 은근히 걱정을 했단다.”

하고 말씀하시자 할아버지께서

“그 재수 없는 소리. 위암이 아무에게나 걸리나?” 하시며 눈을 힐끗 하셨읍니다.

그날부터 할머니께서는 며칠 동안 죽을 잡수시게 되었읍니다.

병원에서 죽을 조금씩 잡수신 사이에 하루 세 번 우유를 약간씩 드시라고 하셨는데, 다른 때 같으면 우유를 싫어하시는 할머니가 어머께서 우유에는 여러가지 영양소가 들어있어 건강에 무척 좋다고 하시며 잡수시라고 권하시면

“싫다. 나는 ning해서 우유는 못 먹겠더라. 아이 들이나 줘라.”

하시며 거절하시더니, 병원에 다녀 오신 후부터 식 후 중간쯤에 반컵 정도의 우유를 드시게 되었읍니다.

할머니께서 우유를 약처럼 훌쩍 마시는 것을 보고 계시던 할아버지께서

“그 의사 선생님이 무섭기는 무섭구나.”

하고 말씀하셨읍니다.

다음날 아침 어머니께서는 우리들만 먹던 우유를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드리기 위해서 몇 개 더 주문하셨읍니다.

할아버지께

“아버님, 우유가 건강에 좋다니 이젠 아버님도 매일 매일 드시도록 하세요.”

“그러면, 내일부터 우유를 더 주문해서 아범과 어멈도 하나씩 먹도록 해라.”

하고 말씀하셨읍니다.

그 후부터 우유를 싫어하시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도 우유를 드시게 되었읍니다.

“먹어 보니 이제 그 고소한 우유 맛을 알겠구나.” 하시는 할머니 말씀에 우리 가족들은 모두들 한바탕 웃었읍니다.

이젠 아침 일찍 건강을 배달해 주는 우유 아줌마를 기다리는 우리집은 우유 가족이 되었답니다.

